

오피니언

특/별/기/고

우제길



인구 13만에 불과한 경상남도 통영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굵직한 인물들이 많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최근에 작고하신 토지의 박경리 선생과 더불어 시인 유지환, 그리고 전혁림 화백을 떠올릴 수 있다. 전혁림 화백은 일생 동안 통영을 떠나지 않고 졸골 고향을 지키면서 그곳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향취를 바탕으로 독특한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의 자 작품들이 협소하기만 한 작업실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물어있었다. 전 화백은 60을 훌쩍 넘긴 나이까지도 작품 한 점 제대로 팔아보지 못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심한 가난의 긴 역경 속에서도 무수한 작품을 남겼고, 그만큼 후

캔버스 시대

대들이 꿈꾸고 염원하는 찬란한 예술정신을 꽃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흔다섯의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는 그 열정 앞에 탄성과 더불어 부러움이 앞섰다. 어찌면 이 시대 아날로그 작가의 살아있는 본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현대미술의 반두이는 개념들이 관을 치는 시대이지만 작가에게는 작업의 양이 우선이라고 보기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다. 전 화백의 대표 작품으로 부산시청 벽면에 자리한 가로 27m, 세로 14m의 대작 '한국의 풍물'을 들 수 있다. 작품의 크기

가 그 예술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아닐 테지만, 대작을 소장할 수 있었던 부산광역시청의 기획력과 전 화백의 작품제작 역량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작업실을 지키는 화백의 아들 또한 중년(53세)의 나이를 넘기까지 부친의 삶을 지켜보며 화가로서 성장한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전 화백은 만년에 들어 그 예술 세계를 정리하고 작가의 꿈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 미술관에서 느꼈던 남다른 '화가의 체취'는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아날로그'식 작업 방식의 강점은 작가의 감정과 체취, 정신적인 기운을 캔버스 위에 감정이 담긴 형태와 색채를 담아내는 일이다. 비디오 아트의 '고유명사'인 백남준은 19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에 "현대의 경쟁은 소프트웨어의 경쟁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캔버스 위가 아니라 TV모니터를 통하여 예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백남준의 예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젠가는 캔버스가 사라지면서 캔버스 시대의 종말이 올러는 지도 모른다. 사람 냄새, 그리고 오일물감의 독특함이 돌신 배

어있는 작품들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버스를 고수하는 평면작업은 부산한 현대미술 곳곳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표현 매체의 달라짐은 시대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광주에도 이러한 변화는 극명하다. 근래, 예술의 첨단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LED 또한 적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저런 국제적인 세파에 휘둘려 예향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무색해진 광주이지만, 캔버스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처럼 이 지역 화단을 일구어 온 옛세대 작가들은 그 존재 자체로 값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시대를 대표해 온일 세대 작가들에 대한 섬세한 조명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을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보다 먼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획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외치는 것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무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을 잊게 한 원동력에 대해 깊이 사색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라는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우제길미술관 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전남 슬로시티' 대표 녹색관광지로 육성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된 전남 4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남도와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완도 청산도와 신안 증도를 찾은 관광객은 2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9%와 24.8%가 증가한 수치다.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 지역도 녹색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20% 이상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슬로시티 지정 이후 다양한 체험 관광상품을 내놓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완도 청산도와 신안 증도는 '슬로시티 1박2일' '보물섬 증도여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 역시 '슬로시티 남도여행' 등을 통해 녹색 관광의 새 장을 열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쾌적한 숙

박시설도 부족한 슬로시티가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느낌과 여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슬로시티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순박한 농촌에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느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지금이 슬로시티를 대표적인 녹색 관광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호기다. 기존의 관광지처럼 지나친 투자나 마구잡이식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 일본의 20개 농촌지역이 슬로시티 지정용 2차레나 신청했으나 지나치게 현대화·서구화돼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남도의 역사와 고유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옥 숙소와 체험 공간 마련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빛 무서운 줄 모르는 대한민국 걱정된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금 융부채 규모가 6년새 1천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 른다면 '이자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과 기업, 정부의 금융부채는 2천317조4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말보다 1천59조 원, 84.3%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명 목 국내총생산(GDP) 1천24조원의 두 배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금융부채는 국제발행이 늘어나면서 3월 말 현재 307조 원으로 2006년 말보다 200%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 빚과 개인 빚도 82.7%, 61.8% 각각 증가했다. 빛이 급증하면서 연간 지급해야 할 이자만 1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됐다. 한 해 국내총생산의 13%를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빛 잔치' 중인 것이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은 경기 침체, 저금 리 기조, 부동산 투자 열풍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금리와 이자 부담이 늘면 각 경제주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우선 정부는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진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및 이자 급증은 금융 건전성과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금융권의 부실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인구나 세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 증가 등이 맞물려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부채조정의 고삐를 조여 재정 건전성을 되찾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통해 소득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 들은 빛에 의존하는 짝질서 경영에서 탈피해야 하고 개인도 빚을 얻어 무분별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우 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각 경 제주체들이 빛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 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홍석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에 내추는 31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사고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오랜 가을 끝에 내린 단비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특히, 영산강과 셋강의 치수 및 이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이번 비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날 정부는 총 16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4대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그중에 우리 영산강엔 총 2조 7천억 원의 사업비

있다.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강에서 기원했다는 역사는 잊혀두더라도, 본래 강이라는 것은 먹는 물로도 이용하고, 농사도 짓고, 배를 이용해 물건도 나르고, 물고기도 잡는 등 인간과 공존하며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 우리 조상은 영산강에서 먹고, 빨래도 하고, 뱃길을 이용해서 쌀과 면화·홍어도 나르면서 최대한 강을 활용하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왔다. 우리 전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영산강 살리기는 바로 이러한 영산강의 옛 기능

기 고

남상창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아케 휴가철, 올 여름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올 여름의 휴가지는 우리 곁에서 찾으라고 권해준다. 남도에는 찰랑거리는 파도에 몸을 싣고 갯바람 맞으며 자연에 취해 보고픈 섬이 널려 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보배의 섬 진도부터 찾아보려고 권해준다. 진도는 가장 으뜸의 자랑거리가 선조의 호국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한 반도에서 세 번째 크기의 섬으로 크기 또한 자랑거리이지만 그보다는 23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웅기종기 모여서

술과 불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곳이라 했다. 즉 '7보 7락(七寶七樂)', 일곱 가지의 보물과 일곱 가지의 즐길 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이다. 오래전부터 진도 하면 떠오르게 하는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와 있고, 남종화의 본산인 운림산방이 있으며, 여몽연합군의 침입에 항쟁했던 삼별초의 본거지인 용장산성과 남도석성,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다짐하며 마셨다는 혈맹주인 진도 흥주가 있다. 선혈보다도 더 고운 진홍 빛 색깔의 흥주를 한잔 곁들이면 현실의 걱정거리는 잊혀지고 백성의 안

영산강 살리기는 자연 회복 사업

가 투자될 계획이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전남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번 기회에 영산강의 이수과 치수기능을 높여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그런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건설과 하천 바닥을 파내는 준설을 놓고 일부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전 단계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잠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 설치와 하도준설은 한반도 대운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도를 준설하는 것은 오염된 영산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산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운하와 연결 지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는 '강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을 복원 하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강변도로에서 엄마 아빠와 자전거를 타고, 젊은이들이 영산호에서 수상스키를 즐기며 어디서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푸른 영산강, 그리고 강변에 즐비한 남도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멋진 영산강, 로맨틱한 영산강으로 부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영산강 살리기가 운하나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떻게 영산강을 살릴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환경훼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서워 현재의 영산강을 죽여가는 상태로 방치해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친환경적이고 생태가 살아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 지역민의 지혜와 참여를 모아야 할 때다. 무더운 여름밤, 맑고 깨끗한 강물이 출렁거리는 소리와 시원한 강바람을 벗삼아 별이 총총 떠 있는 강변에서 잠들고 싶다. <전남도 건설정책국장>

여름휴가 예술이 숨 쉬는 珍島로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 다. 아름다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어우러진 해안선을 따라 절묘하게 꾸며진 자연 절경, 청정해역에서의 개마기와 조개잡이 체험 등은 가족단위 피서지로도 안성맞춤인 최상의 휴양지다.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먹을거리, 그리고 수준 높은 전통문화예술이 휴양객을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고조시켜 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나를 낚아주고 길러주는 부모와 가족,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토속적인 국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국립 남도 국악원의 상설공연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토요일속공연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술 애호가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미술 체험의 기회와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림산방에서 개최되는 미술작품 토요경매전은 진도만이 갖는 또 하나의 볼거리이고 예술의 특징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진도는 예로부터 전통 문화에

위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일념만 새록 새록 솟아오르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전승사에 단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약무호산 시무국가'의 근원지인 명랑대첩 전승지와 강강술래 터가 있다. 이처럼 호국정신을 기리게 하는 역사유적지는 물론 고달픈 삶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는 세방낙조가 휴양객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하루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붉게 물든 낙조를 바라보며 흥겨운 '진도아리랑'을 한 곡조 읊고 나면 어찌 세파에 시달리는 삶의 고통이 뇌리에 남아있겠는가. 아리 아리랑 소리라 하여 아리리를 낚고, 즐거움을 낚고, 희망을 낚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낚는 곳이다. 이처럼 사람을 낚고, 그리움을 낚고, 연민을 낚고, 구경을 못해서 가슴을 저리게 하는 진도를 찾아보고 싶고 거듭 재언해 본다. 진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루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가 넘쳐나는 진도를 찾아보라... <진도 군수권한대행>

입사지원자 기획안 회사업무 활용 안될 말

최근에 다른 회사의 마케팅 분야 경력사원으로 지원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 간단한 몇 가지만 물어 본 후 다른 사람들과도 공통으로 부과한 과제라며 그 회사 제품의 마케팅과 홍보방안 등을 리포트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각종 서적과 논문들을 뒤적여 3일 동안兢兢 대며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이메일로 보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후 취직하신 친구로부터 충격적

인 말을 들었다. 그 회사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받은 리포트를 업무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기획안을 통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이유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는 결코 도의적이지 못하다. 더군다나 입사 희망자들은 그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문화시민의 기본, 기초질서를 지키자

며칠전 한 취객이 우리 집 담벼락에 대고 소변을 보기에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하자, 말쑥한 양복차림을 한 취객은 "급한 불일을 보는 데 니들이 웬 상관이야, 빨리 꺼져"라고 되려 반박을 했다. 실제 거리를 나가보면 침 또는 똌을 아무렇게나 뺏는 행위는 다반사다. 말쑥한 횡단보도나 육교를 놔두고 큰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심지어 공공도에서 소변을 보는 행 위조차 심심찮게 목격된다. 이러한 현상은

'법을 지키면 자신만 손해'라는 못된 관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데 기인하고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우울한 한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은 문화시민의 기본이며, 민주 사회 정착의 시발점이다. 남을 배려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의 품격을 올리는 민주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치상·광주시 북구 누문동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with sub-header '도깨비 물폭탄' and a small illustration of a ghost and a water bomb.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